인문학 위기에 대한 나, 여기, 지금을 중심으로 한 실존적 접근

김덕삼* · 최원혁**

〈차 례〉

1. 들어가는 말
2. 인문학과 실존의 문제
3. 나, 여기, 지금으로서의 실존
4. 실존적 접근
5. 나오는 말

【국문초록】

본 연구는 나, 여기, 지금을 중심으로 한 실존적 접근으로 인문학 위기의 해법을 찾아보려는 시도에서 출발한다. 이를 위해 구조주의가 실존주의를 비판한 것이 실존 비판으로 전위되어 나, 여기, 지금이라는 실존적 가치가 부정되었다고 보았다.

인문학은 실존 개념과 깊은 관련을 맺고 있다. 그래서 인문학 위기의 돌파구는 실존주의의 실존과 구조주의의 실존을 연결할 수 있는 실존 개념을 모색하는데 있다고 보았다. 이런 측면에서 나, 여기, 지금의 실존적 가치를 통하여 실존주의의 실존과 구조주의

* 제1저자, 대진대학교 교양교직부 부교수
** 제2저자, 대진대학교 대순종학과 강사

의 실존을 연결해 보고, 구조주의와 동양 사상의 실존 이해의 공통성을 찾아 인문학 위기에 대한 새로운 실마리를 찾아보려 하였다. 이를 위해, 동양의 방법과 서양의 방법을 비교하고, 서양의 현대 철학자 푸코, 켄 윌버, 바렐라, 프랑수아 줄리앙 등의 관점을 알아보았다.

주제어: 나, 여기, 지금, 인문학 위기, 실존, 푸코, 켄 윌버, 바렐라, 줄리앙, 동양

1. 들어가는 말

인문학[humanities, 人文學]은 일반적으로 문사철(文史哲)인 문학, 사학, 철학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지칭한다. 인문학은 자연과학과 대립되는 분야로, 인간의 가치에 대한 탐구와 표현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사실 인문학의 범주에 대한 이론은 다양하게 존재한다. 현재 우리 사회에는 인문학이라는 용어가 전과 달리 대중의 입에 자주 오르내리고 있다.[1] 기업에서는 조찬 강연자로 인문학자들이 초빙되고, 외국의 인문학 도서가 한국에 번역되어 선풍적인 인기를 끌기도 하였다. 심지어 인터넷과 스마트 폰을 이용하여 인문학 강의를 제공하는 사업도 생겨났다.[2] 다양한 저작과 강연, 다채로

1) 2013년 7월 10일 박근혜 대통령의 “뭐를 하든 인문학적 바탕이 없으면 괴물이 된다”는 발언 이후, 인문학에 대한 사회적, 정책적 관심이 높아졌다. 대통령직속 문화융성위원회는 처음에는 직제가 없었던 ‘인문정신문화특별위원회’를 만들었다. 그리고 문화융성위원회는 2013년 10월 25일 ‘8대 정책과제’를 발표했는데, 여기에 ‘인문정신문화진흥법 제정과 전담 기구・협의체 운영’이 포함되어있다.

2) 휴넷 행복한 인문학당 등이 있다, 또한 ‘인문학’으로 검색하면 연관어휘로 인문학 특강, 인문학 책 추천, 인문학 강의, 인문학 강좌, 인문학이란, 인문

운 행사와 프로젝트, 연일 이어지는 정책성 발언과 수많은 인문학 세미나 등에서 인문학이라는 이름이 거론되고 있다. 그런데, 이처럼 인문학이 우리 주면에 자주 회자되는 것은, 인문학의 생존을 위한 몸부림에서 기인하는지 모른다. 예로부터 인문학은 삶과 교육 현장에서 살아있는 존재였다. 그러나 자연과학과 사회과학이 발달하고, 이에 힘입은 다양한 과학 기술이 우리 사회의 변화를 촉진하면서 인문학은 그 존재 가치를 점차 잃게 되었다.

인문학의 위기라는 절박함에서 인문학 종사자와 관련자들은 인문학 위기론과 인문학 회복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정책적으로는 고사되어 가는 인문학에 대한 다양한 지원책이 수립되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애플의 스티브 잡스가 촉발시킨 인문학, IT, 디자인의 융합은 인문학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었다. 그러면서 자연과학에도 사회과학에도 그리고 제품의 생산과 개발에 있어서도, 인문학적 성찰과 반성이 필요하고, 이러한 과정 속에서 우리 인류가 온전히 발전해 나아갈 수 있다는 생각을 확산시켰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실용과 경제의 속박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서점의 베스트셀러는 실용서와 처세술 책으로 도배한지 이미 오래이며, 이러한 분위기가 쉽게 사그라질 것 같지 않다. 우리나라 10세 이상 국민 가운데 하루 10분 이상 책을 읽는 사람이 10명 중 1명 정도란다. 물론 만화책까지 포함해서 말이다. 이처럼 척박한 토양 속에 인문학의 열풍은 찻잔 속 태풍에 불과할 수 있다. 지금처럼 실용과 경쟁, 물질과 경제성이 우리를 지배한 상황에서 고전적 인문학은 설자리가 없다.[3] 지금 우리의 인문학은 보다 경쟁을 잘

학으로 광고하다, 인문학습원, 인문학 노래로 쓰다, 인문학 콘서트, 인문학적 소망, …… 인문학 공부법, 인문학의 중요성 등이 제시된다. 2013년 9월 30일 NAVER검색.

3) 선진국의 경우도 인문학이 위기를 맞고 있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Masao Miyoshi, The University and the ‘‘Global’’Economy: The Cases of the United States and Japan, The South Atlantic Quarterly, Volume 99,

하기 위한, 보다 물질적으로 풍부해지기 위한 실용적 도구로 필요할 뿐이다. 지금 유행하는 인문학 가운데 어떤 것은 인문학이 아닌 실용 그 자체인 것도 있고, 어떤 것은 인문학을 상품화시켜 자본주의의 산물로 전락한 것도 있고, 어떤 것은 단순한 지적 호기심을 채워주는 것도 있다. 유행에 맞춰 모두 인문학이라고 포장된 것이다. 물론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인문학의 범주에 대해서는 다양한 이론이 존재하기에, 각 관점에 따라 인문학에 대한 평가가 달라질 것이다.

인문학이 근본적으로 지니고 있는 인문학의 비판적 성찰과 근원적 사유의 자세는 세계화와 자본주의와 정보화로 특징지어진 디지털 문명의 시대에 구시대의 유물로 보이기 쉽다. 세계화 속에 가열된 무한 경쟁의 확대, 자본주의의 산물인 환상적 욕망과 끝없는 상품화, 그리고 정보화시대의 속도전과 단편적 지식의 행진은 장대중후(長大重厚)한 인문학의 근간을 위협하는 심각한 도전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다시 원점으로 회귀하여 성찰해 보는 것이다. 인문학이 아닌 '인문정신'과 시대탄식이 아닌 '시대정신'을 살려 '나와 여기와 지금'에서 성찰해 보아야 한다.[4)]

이러한 측면에서 본고에서는 21세기 인문학의 위기와 관련하여 나, 여기, 지금을 중심으로 한 실존적 접근을 시도해 보려 한다. 그 주요 이유는 20세기에 유행했던 실존개념이 인문학 위기를 벗어나는 동인(動因)이 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20세기 실존주의에서 대두된 실존이라는 화두가 사라진 후 주춤했던 인문학은

Number 4, Fall 2000, pp. 669-696 참조) 그러나 선진국에서는 자신들의 인문학을 보호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전담기구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예를 들어, 영국의 인문예술연구원(AHRC), 프랑스의 국립학술연구원(CNRS), 미국의 국립인문재단(NEH)같은 것들이다.

4) 나, 여기, 지금을 문화 수용과 창조의 출발로 보며 설명하였다.(김덕삼, 『문수창: 문화의 수용과 창조』, 북코리아, 2013, pp. 153-181)

포스트모더니즘이라는 사조로 다시 부활하는 듯 했다. 그러나 실존주의 비판에서 비롯한 포스트모더니즘은 실존주의 비판에 치중하여 실존주의가 서양철학사에 불러일으킨 실존 개념마저 왜곡하여, 실존주의가 정립한 인문학의 존재기반인 실존마저 위협하여 오늘날 인문학의 위기를 초래한 점이 있다. 실존주의가 제기한 실존 개념은 21세기 인문학 부활의 열쇠를 쥐고 있음은 이미 주목받아왔기에, 실존 개념을 부활시키려는 시도가 다양하게 이루어졌지만 거의 성공하지 못하고 오히려 21세기 인문학은 반실존적이라는 오해를 받고 있다. 포스트모더니즘은 실존주의에 대해서는 반대했지만 학문적 방법론에서 실존을 더욱 세련되게 하였으므로, 인문학의 본질인 실존은 역으로 더욱 발전할 수 있었다.

이 글은 후기구조주의가 포스트모더니즘에 결정적 역할을 하였고, 구조주의와 후기구조주의가 매우 다르다 해도 둘 다 인간 주체, 의미, 역사주의 철학에 대해 비판적 태도를 취한다는 점에 착안, 21세기 전반 인문학 위기의 원인이 포스트모더니즘의 반실존적 오해에 있다고 가정하고 20세기를 전후한 실존주의와 반실존주의를 통틀어 나타나는 실존 개념을 나, 여기, 지금에 주안하여 추적하고자 한다.

2. 인문학과 실존의 문제

정신병리학에서 한 사람의 정신 상태를 특징짓는 단어를 파악하는 방법은 대개 그 사람이 가장 좋아하는 단어에서 찾는 것이 아니고 가장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단어에서 찾는다. 이처럼 부정적으로 선호된 객체를 일컬어 '트라우마'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같은 맥락에서 한 시대를 특징짓는 단어 또한 그 시대가 가장 선호하는 단어에서 찾기보다는 그 시대가 가장 억압하는 단어, 가장

부정하는 단어에서 찾아 볼 수 있다. '반실존주의'로 시작된 후기 현대철학을 고려한다면, 오늘날 현대의 그 단어는 '실존'이라 할 수 있다. 오늘날 인문학에서 '실존'의 개념은 정신병리학에서 '트라우마'와 같이 잊고 싶어도 계속 기억에 남고, 그 영향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인문학의 트라우마로서 '실존'을 거론한다면, 오늘날 인문학은 실존주의가 발견한 실존의 책임을 어떻게 회피할 수 있는 가로 점철되어 있다. 인문학은 '구조'를 중심으로 실존의 무게를 없애는 방향으로 조건 지워졌으며, 이것이 20세기 후반 인문학 위기의 결정적 원인이 되었다. '실존주의를 부정하는 실존적인 구조주의'라는 예상을 벗어난 오늘날 인문학 환경의 변화는 기존의 인문학을 위기에 빠뜨린 이유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실존주의를 부정하는 구조주의가 득세하자 후기 구조주의, 마르크시즘 등도 실존을 강조하면서 구시대의 유물로 전락되고, 여기에 더하여 인터넷이라는 예상을 뛰어넘은 인문학 환경의 변화도 인문학 위기를 촉발했다. 이러한 측면에서 인문학 위기의 돌파구는 실존주의의 실존과 구조주의의 실존을 연결할 수 있는 실존 개념을 모색하는데 있다고 본다. 이런 측면에서 나, 여기, 지금의 실존을 통하여 실존주의의 실존과 구조주의의 실존을 연결해 보는 것은 의미가 크다.

오늘날 인문학의 위기에는 '카오스'라는 표현이 적절하다. '실존주의를 부정하는 실존적인 구조주의'는 이미 '이데올로기의 종말'로부터 시작하여, '역사의 종말', '거대 담론의 종말'등으로 인문환경의 변화를 드러냈다. 새로운 표현들은 주로 부정적인 표현으로 아직 실존주의와 같은 긍정적인 형태의 구체적인 관점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오늘날 인문학 환경의 변화를 압축해 본다면 잠정적으로 '반실존주의'라는 용어로 표현해 볼 수 있다.

과거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늘날의 '반실존주의'에 내재한 실존을 예상하지 못했지만, 한 학자가 오늘날의 인문학 환경의 변화를

예상하였다.[5] 바로 '포스트모더니즘'이라는 용어를 처음 만든 사람이자 역사학의 실존주의자라 할 수 있는 아놀드 토인비다. 아놀드 토인비를 역사학의 실존주의자 할 수 있는 것은 역사 개념에 '도전과 응전'이라는 새로운 실존의 개념을 도입한 학자이기 때문이다. 아놀드 토인비는 역사학의 대가답게 시대를 앞서서 태어나는 새로운 실존 개념을 '포스트모더니즘'이라고 정확히 지칭하였다. 토인비의 예언대로 오늘날 새로운 실존을 푸코는 '자기에의 배려', 프랑수아 줄리앙은 '내재성', 켄윌버는 '초월심리' 등으로 표현하였다.

그러나 오늘날 후기구조주의 등의 의미로 사용되는 포스트모더니즘 개념에는 아놀드 토인비가 처음 지칭할 때의 새로운 실존 개념이 빠지고, 지나치게 구조주의적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아놀드 토인비가 포스트모더니즘이라 지칭한 '실존주의 이후의 실존' 개념은 오늘날의 후기 구조주의 보다 더 실존을 강조한 개념이었다.[6]

한편으로 '반실존주의'로 대표되는 20세기 후반의 인문학 부활이 실존주의 유행이라는 20세기 초반의 인문학 부활과 달랐던 점은 자연과학과 인문과학을 융합한 복잡한 이론체계와 전통의 단절이었다 할 수 있다. 먼저 전통의 단절을 보면 20세기 후반의 인문학 부활인 포스트모더니즘은 20세기 전반의 실존주의에 대한 비판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이다. 소위 '반실존주의 진영'이라 불리는 구조주의 계열의 포스트모더니즘의 지식인들은 실존주의의 인간개념보다 구체적으로는 나, 여기, 지금이라는 실존 개념의 조작 가능성을 실존주의 비판의 주요지표로 삼았기 때문이다.

---

5) 포스트모던이라는 용어는 영국의 역사가 아널드 토인비(Arnold J. Toynbee)가 『역사연구』에서 19세기 말 이후 서구 근대 문명의 위기를 지칭하는 개념으로 최초로 사용했다.(Toynbee, Arnold(1965). A Study of History, New York: Dell, p. 57.)

6) 강기철, 『후과학단계의 세계관』, 문예출판사, 1994, pp. 248-252.

실존주의에 대한 비판의 포문을 연 레비스트로스의 구조개념으로부터 구조주의 정신분석학을 개호한 라깡, 그리고 주체가 권력에 의해 어떻게 조작되며 또 조작된 주체개념마저 어떻게 사상사에 의해 변형되는지를 보여 준 데리다까지 포스트모더니즘에 의해 실존주의가 제기한 나, 여기, 지금이라는 실존주제는 어리석음의 표본이 된 형국이 되었다. 반면 인문학과 대응되는 위치에 있는 자연과학의 세계에서는 오히려 나, 여기, 지금이라는 실존의 주제가 자연과학적 연구대상으로 등극하였다. 자연과학의 세계에서 오히려 나, 여기, 지금이라는 실존의 주제는 물리학적으로는 상대성이론과 양자역학에서 시간, 공간, 관찰자라는 주제로 과학이론의 핵심 주제로 부각되었다. 사회과학에서도 기술이 평준화되는 후기산업사회에서 나, 여기, 지금이라는 실존이 상품의 가치를 결정하는 주요지표가 되어 경쟁력의 핵심이 되었다. 이처럼 20세기 전반 인문학에서 발원한 실존의 문제를 자연과학과 사회과학에서 계승한 셈이 되었다.

20세기 후반이 '반실존주의'라는 트라우마 성격으로 요약될 수 있다면, 인문학 위기의 극복 방법도 트라우마 치료의 원리와 같이 '독은 독으로 치료한다'는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반실존주의'에서 촉발된 인문학의 위기는 토인비가 제시한 바와 같이 실존주의보다 더 발전한 실존의 개념을 도입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다고 본다.

3. 나, 여기, 지금으로서의 실존

인문학의 부흥은 인문학적 문제해결방법의 부흥에 있고 인문학적 문제해결은 실존적 접근에 있다 할 수 있다. 실존 개념이 서양의 인문학을 부흥시킬 수 있었던 것은 실존이 전에는 없었던 새로

운 인문학적 문제해결방법을 제시해주었기 때문이다. 자유주의와 변증법적 유물론이라는 2가지 문제 틀에 주로 의존했던 서양에 실존주의라는 비실체적인 문제해결 틀이 나타난 것이다. 일체의 실체적 가정 없이 나, 여기, 지금이라는 상황적 관점에서 문제를 풀어나가는 비실체적인 문제 해결 틀인 실존 개념은 자유주의와 변증법적 유물론이라는 2가지 문제틀 밖에 없던 유럽에서, 유럽이 처한 당시의 위기 상황에서 발생한 새로운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역할을 하였다.

나, 여기, 지금이라는 실존 개념이 단순해 보이지만 실체중심으로 사고하는 서양인에게는 아직도 낯선 개념이다. 실존 개념은 서양에만 고유한 개념으로 생각되어 왔기에 실존개념은 지금까지 실체중심으로 생각하는 서양 사람의 문제 틀에서만 생각되었다. 그러나 구조주의의 실존주의 비판을 살펴보면 실존 개념이 서양인에게는 매우 낯선 동양적 관계 개념 또한 포함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실존 개념이 가지고 있는 문제해결적 특성에는 실체적인 실존과 구조적인 실존 두 가지를 내포하고 있다. 구조주의적 실존 개념이 동양의 관계적 실존 개념과 유사하다면 오늘날 인문학 부흥을 위한 구조주의와 실존주의의 실존 개념 통합은 동서양 사유의 차이 이해를 통해 가능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실존 개념과 관련하여 다양한 학파와 사상이 있지만 실존주의의 특징을 거칠게 표현한다면 개인에 대한 절대적 신뢰의 붕괴, 한계상황에서의 생존, 본질에 앞서는 실존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실존주의의 특징 중 본고에서 실존 개념의 구조적 특성으로 주목하는 것은 위 3가지 실존주의의 특징이 나, 여기, 지금이라는 인간, 공간, 시간 개념에 기반하고, 이는 동양사상과 현대 문제해결기법에서 문제해결의 요소가 가지고 있는 시간[天], 공간[地], 인간[人]의 관점과 동일하다는 점이다. 손자병법으로 대표되는 동양의 문제해결기법은 문제를 늘 시간[天], 공간[地], 인간[人] 곧 나, 여기,

지금의 관점에서 해결해왔다.[7]

실존주의에 내포된 인간, 공간, 시간 개념의 문제 해결적 특성의 발굴은 실존 개념이 서양에서 탄생하게 되는 배경과 동서양 실존 개념의 이해 차이로부터 찾을 수 있다. 20세기 초에 나, 여기, 지금은 후설로부터 시작되는 현상학의 방법론 논쟁에서 보여주듯, 자연과학에 대비되는 철학의 근원적 보루로 등장했다.

키에르케고르로부터 시작되어 후설에 이르러 이론적 기틀이 이루어졌지만, 당시 실증주의에 대항하는 현상학, 생철학, 실존철학은 이구동성으로 실증주의적인 과학은 나, 여기, 지금이라는 실존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보여주고 실존적 대안을 제시 한 바 있다. 후설은 나, 여기, 지금이 없는 심리주의를 비난하며 '나'를 강조하는 현상학적 환원을 주장하였고, 베르그송은 칸트의 평면적 시간관을 비판하며 '비약'으로서의 '시간'을 제시했으며, 니체는 자연과학을 또 하나의 사제로 간주하며 계보학을 제시했고, 마침내 하이데거에 이르러서는 현대를 '존재망각'으로 최종적으로 결론짓고 현존재 곧 실존의 부활을 선언했다.[8]

실존주의의 발생과 퇴장 과정은 실존주의에 대한 강력한 비판자였던 구조주의에 이르러 명확해졌다. 푸코는 인식론적 구조주의를

---

7) 동서고금을 통하여 나, 여기, 지금은 따로 또는 함께 중시되었다. 달라이라마처럼 정신계의 스승으로 떠오른 에크하르트 톨레도 지금의 가치를 중시하여 "현재의 힘(Power of now)"을 강보했다. (에크하르트 톨레, 『지금 이 순간을 살아라』, 양문, 2008.)

8) 하이데거에게 있어 초기와 후기, 즉 현존재에서 존재로의 이동이라는 초점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일관되게 관통하는 하이데거 나름의 존재이해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이미 존재에 참여하고 있는 '지금'과 '거기'에 있는 존재자로서의 인간이해라 할 수 있다. 즉 시간적으로는 탄생과 죽음사이의 '지금'이고, 공간적으로는 장소와 장소의 어떤 틈새에서 틈새를 만들어 가는 '거기'의 존재자로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존재자라고 한다.(서동은, 「사이-존재(Dasein)로서의 인간」, 『존재론 연구』 25, 한국하이데거학회, 2011, pp. 174-175.)

표방하던 초창기 시절『말과 사물』에서 실존주의를 유한성으로 대표되는 근대적 에피스테메의 극치로 표현한 바 있다. 푸코는 나, 여기, 지금이라는 실존의 개념을 유한성의 보다 급진적인 형태로 파악한 것이다. 푸코가 분석한 서양에서의 실존 개념 발생과정을 따라가 보면 동양에서 실존 개념이 발생하게 된 과정과 유사함을 알 수 있다.

유한성은 서양 근대가 기원한 사상이지만 실체의 무한성을 중심으로 하는 서양에는 낯선 사상이었다. 만물을 주체의 실천이 아닌 구조의 반영으로 간주하는 구조주의자였던 푸코는 초창기에 데카르트적인 이성으로부터 시작된 신성한 근대적 이성의 출현을 유한성이라는 구조의 측면으로 이해한다. 푸코는 신이 사라진 시대 유한한 인간으로써 무한한 신이 제공해주는 안정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은 데카르트와 칸트처럼 인간의 유한성을 그 자체 신성시하는 방법이었다고 한다. 데카르트와 칸트 이후 인간의 인식이 가지는 시간, 공간의 유한성은 실존주의에 이르러 더 미분화, 급진화되어 나, 여기, 지금으로 발전했으며 그 변화의 끝에서 결국 역행하여 구조주의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이다.[9)]

데카르트와 칸트로부터 시작된 유한성의 발견은 인식론에서 전 방위적으로 확대되었다. 푸코에게 있어 실존주의는 인식론을 넘어

9) 푸코의 표현을 따르자면 칸트는 유한성의 분석학(l'analytique de la finitude)을 창시함으로써 근대를 열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지시로서 스스로를 규정하는 유한성의 분석학 안에서 인간은 탐구의 주체이자 대상이 된다. 이제 칸트의 유한성의 분석학에 의해 인간의 개념이 등장하고 이는 다름 아닌 인간학의 탄생을 의미한다. 푸코는 "형이상학의 종언은 서양의 사유에서 발생했던 훨씬 더 복합한 사건의 부정적 측면에 불과하다. 그 대사건은 인간의 출현이다 I…l 보다 근본적으로 우리의 문화는 자기 자신에로의 끝없는 지시 안에서 유한성이 사유 되었던 바로 그 날(le jour où la finitude a été pensée dans une référence interminable à elle-meme)로부터 우리 가 근대성을 인식하는 문턱을 뛰어 넘은 것"이라고 한다.(허경,「미셸 푸코의 '사물'에 나타난 '근대 인간과학'의 개념」,『인문언어』10, 국제언어인문학회, 2008, p. 332.)

존재론에 유한성을 적용한 사상일 뿐이다. 유한성이라는 측면에서 실존주의는 근대 인식론 중심의 사상들과 동일선상에 있다. 유한성이라는 근대성을 구조라는 무한성으로 대체한 구조주의는 푸코에게 있어 진정한 현대 사상이었다.

푸코가 말하는 유한성은 현대 인식론에서 러셀역설로 나타난다. 러셀역설은 괴델의 불완전성정리에 대한 논리학적 표현이다. 어떠한 현상도 모두 수식화 할 수 있다는 기계론적 우주는 바로 모두 수식화할 수 있는 그 자체를 수식화 할 수 없다는 러셀역설을 극복할 수 없어, 우주를 수식화 할 수 있다는 근대 신화의 붕괴를 의미했다. 결국 우주는 수학화 할 수 없는 순환의 세계라는 것이다. 만물이 수학화되면 우주는 무한히 발전할 것 같지만 무한은 순환이 가지는 피드백에 의해 제한된다.[10]

존재론과 인식론에서 강조된 유한성은 가치론에서는 니체에 의해 표현되었다. 니체는 계보학을 통해 인간은 보편적인 원리에 의해서 가치 판단하는 존재가 아니라 나, 여기, 지금에 의해 가치 판단한다는 계보학적 가치론을 제시했다.[11] 오늘날 정신분석학이나

---

10) 러셀역설이란 유머와 속담의 대분분을 차지하는 역설이라 할수 있다고 한다. 일상생활 속에서 러셀의 역설을 발견하기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케스틀러Arthur Koestler는 유머란 모두 이 역설과 관계되어 나오는 것으로 보았다. 우리 나라에 전래되는 속담 가운데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 “등잔 밑이 어둡다.” “고양이에게 생선 가게 맡기랴.” “똥 묻은 개 겨 묻은 개보고 나무란다.” 등은 자디언급을 하는 러셀역설을 보여준다. (김상일, 「음양오행론과 러셀의 역설」, 『과학사상』 25, 범양사, 1999, pp. 188-189.) 러셀은 러셀역설을 발견하고 서양 철학의 종말을 선언하고 서양철학을 구하기 위해 화이트헤드와 함께 수리논리학을 만든다.

11) 니체는 전통적 의미의 초자연적이고 영원동일적인 도덕적 진리란 실재하지 않는다고 본다. 도덕적 진리란 단지 인간이 자신의 삶을 안정적이고 영원동일적으로 <보존>하기 위한 바램에 의해 만들어낸 상상적 이념일 뿐이다. 전통 이성주의자들은 형이상학적 원인개념으로 유도하는 인과율과 언어의 은유적 속성과 주어-술어적 문법구조 그리고 이성이라고 하는 독특한 능력에 의해 도덕적 진리를 참된 실재성으로 믿게끔 하여왔다. (이창재, 「영원 동일적 도덕가치관에 대한 니체의 비판」, 『연세철

지식사회학에서 말하듯 그 누구도 나, 여기, 지금을 떠나 중립적인 사람은 없으며 또 중립적인 것이 가치가 있지도 않다는 것이다.

인식론, 존재론, 가치론의 유한성이라는 개념으로 발전하게 된 서양의 실존 개념과 실존주의는 한 때 철학을 통일할 듯 보였지만, 2차 대전 후의 공백상태가 수습되고 경제발전의 시기가 되자, 외부적으로는 사라졌던 실증주의에 밀려나고, 내부적으로는 구조주의로부터 비판받게 된다. 구조주의 또한 기존 실증주의와 달리 실존의 문제를 중시했으나 실존주의는 비판하게 된다. 구조주의가 실존주의를 비판하자 실존까지 퇴색되게 되어 세계는 실존의 문제해결 관점의 전환이라는 큰 기회를 놓치고 위기를 맞고 있다 할 수 있다. 문제해결 관점의 실존에 대한 고찰은 반실존주의 진영의 실존주의에 대한 반대가 실존에 대한 비판이 아님에서부터 출발해야한다.

다음으로, 동서양의 '실존' 이해 방식의 차이로부터 새로운 실마리가 찾아지고 있다. 인문학 위기의 열쇠가 될 수 있는 구조주의와 실존주의의 통합적 실존에 대하여 동양의 관계적 실존 개념은 대립자를 통일시키는 원리라는 점에서 구조주의와 가깝다.[12] 오늘날 인문학 위기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실존개념이 동양에 의해 가능하지 못했던 이유는 동서양의 '실존' 이해 방식의 차이가 동양인에게 명확히 인식되기 힘들었기 때문이다. 동서양의 '실존' 이해 방식의 차이는 오늘날 학문 중에서도 개별학문이 아닌 통합적 학문의 연구결과로 밝혀지고 있다. 통합적 학문은 학문간의 통합과 서양학문과 비서양학문간의 통합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동서양 실존이해의 차이와 관련하여 서양 학문과 비서양학문간의 통합에 대해서는 최근 들뢰즈와 프랑수아 줄리앙의 내재성 연구가, 학문간의

학』 3, 연세대철학과 대학원, 1991, pp. 79-80.)

12) A. C . 그레이엄, 『음양과 상관적 사유』, 청계, 2001, p. 264.

통합적 학문에서는 바레라의 구성주의가 각각 밝혀주고 있다.

먼저 서양 학문과 비서양학문간의 통합에 대한 들뢰즈와 프랑수아 줄리앙의 내재성 연구에서 실존의 문제를 살펴보면, 서양 사상의 내재성은 아리스토텔레스의 4원인론과 음양사상의 비교를 통해 드러난다.[13] 동서양의 차이를 심리학적 실험으로 접근한 니스벳의 실험에서처럼 서양은 동사중심으로 주체 위주의 사고를 하고, 동양은 명사 중심의 배경 위주의 사고를 하는데[14] 그 기원을 아리스토텔레스의 4원인설에서 찾아 볼 수 있다고 한다. 동서양 내재성의 차이를 알기 위해 아리스토텔레스의 4원인설과 음양사상을 비교하는 이유는 두 사상이 모두 우주안의 대립자의 존재를 가정하기 때문이다. 대립자의 통일은 동양사상의 특징일 것이라는 상식과 달리 서양도 대립자의 통일이 주요 주제였지만, 아리스토텔레스로부터 제 3의 원인인 실체라는 것이 도입되었다는 것이 결정적 차이가 되었다. 동서양의 내재성에 대한 이해의 차이가 동서양의 '실존' 이해 방식의 차이를 설명할 수 있다. 내재성이란 어떠한 사유를 가능하게 하는 근본원리라 할 수 있는데, 한 사상을 이해하려면 그 사상의 내재성을 알아야 되고, 그 내재성은 사상 내부에서는 발견할 수 없고 다른 사상과의 비교를 통해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서양사상은 동양사상과의 사유방식 비교를 통해, 동양 사상은 서양 사상과의 사유방식 비교를 통해 알 수 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도입한 제 3의 원인인 실체라는 것이 흔히 철학에서 말하는 주체인데 오늘날 주체, 실체라는 개념은 너무나 당연한 개념 같지만 동양의 문화에서는 쉽게 발견하기 어렵다. 예를 들어 두 대립자인 불과 물의 변화를 설명하는 경우, 제3의 실체를 상정하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체계에서는 불 속에 물로 변하는 속성

13) 신지영, 『내재성이란 무엇인가』, 그린비, 2009. pp. 16-23.
14) 리처드 니스벳, 최인철 역, 『생각의 지도』, 김영사, 2005.

이라는 실체가 있어야 변화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반면 제3의 실체를 상정하지 않는 음양사상의 경우 불에서 물로의 변화 자체를 변화라고 했다. 속성이라는 제 3의 실체를 가정해야하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체계는 다시 제 3의 실체가 생기는 다른 원인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형상, 목적, 질료, 운동인이라는 4가지 원인설이 있어야 했고 동양은 음양 하나로 다 설명했다. 제 3의 실체를 가정한다는 익숙하고도 단순한 가정 하나가 동서 문화를 3,000년에 가깝게 갈라놓았다. 이것은 이처럼 익숙하여 보이지 않고 모든 곳에 존재하기에 내재성이라고도 할 수 있다.

동서양을 구분짓는 내재성 개념은 실존주의에서 발견한 존재 개념으로부터 출발한다. 실존의 발견은 존재자와 존재를 구분한 하이데거의 발견에서 비롯된다. 존재자와 존재를 구분한 하이데거의 발견을 통해 서양은 서양 내재성의 특징인 존재론적 독단에 대한 자기의식을 가질 수 있었다.

> 이처럼 존재와 존재자가 상호 어떤 관계에 서 있는지에 대해 종래의 존재론은 합당하게 해명하지 못하고 있다. 이 구별을 하이데거가 비로소 정확하게 개념 정리하려고 시도했다. 바로 '존재론적 차이'다. "존재에 대한 통상의 이론(존재론)은 '존재자'와 '존재'를 구별한다. 이에 따르면 존재하는 모든 것이 다 존재자이다. 사물들, 인간들, 세계 그리고-최고의 존재자로서-신 등 모든 것이 다 존재자이다. 이에 반해 존재는 사물들, 인간들, 세계 그리고 신을 그것들이 그것으로 존재하고 있는 그것으로 만드는 바로 그것이다. '무(無)'라는 단어와 똑같이 전혀 정의할 수 없는 이 마술 단어 '존재'를 천 년 이상이나 수많은 무리의 철학자들이 고심하며 논하고 다루며 씨름하여 왔다."[15]

위 글에서 존재와 존재자의 구분은 아리스토텔레스가 발견한 실

15) 『하이데거 철학에의 안내』, 이기상 편저, 「하이데거의 삶과 철학」, P.H.쾨스터스, 서광사, 1993, p. 22.

체와 관계된다. 동양보다 서양이 존재와 존재자의 구분이 명확하고 오랫동안 존재망각을 해온 이유는 아리스토텔레스가 발견한 실체개념에 치우쳤기 때문이다. 실체라는 존재자보다 인간, 공간, 시간이라는 존재가 내재성이 우선되기에 나, 여기, 지금이라는 실존으로부터 존재자는 사유될 수 있다.

동서양 내재성의 차이에서 동서양 실존의 차이를 보면 동양이 서양보다 왜 실존 개념이 익숙한가를 알 수 있다. 하이데거의 실존주의와 관련하여 전해지는 에피소드는 서양의 대학원생이 겨우 이해하는 실존주의를 동양인은 초등학생 수준에서 이미 이해한다는 것이다. 실존이라는 개념 자체가 나, 지금, 여기와 같이 인간, 공간, 시간이라는 실체의 운동량 변화인 미분과 같은 개념을 가지고 있기에 운동과 변화를 그 자체 실재라 생각하는 동양에서 실존은 매우 익숙한데 반해, 만물을 정지된 실체의 사물로 보는 서양의 경우 운동의 개념인 실존이 매우 낯설고 획기적이었다 할 수 있다.

동서양 내재성의 차이에서 온 실존 개념의 차이는 바렐라의 구성주의 윤리학에 의하면 동양 실존의 개념 확대에도 영향을 미쳤다. 바렐라에 의하면 실존의 발견에만 그친 서양과 달리 동양은 실존의 개념을 문제 해결, 나아가 수양론, 윤리학의 경지에까지 발전시키게 된다.[16] 구성주의란 칸트로부터 시작되는 지식의 구성론이다. 인간의 인식라는 것이 결국 인간 그 자체의 한계에 의해 구성되어지는 것일 뿐이라는 칸트의 방법론을 확대한 구성주의는 동양과 서양 등 어떤 학문에서 절대성은 없고 그 체계 내에서 내재적으로 평가되어야한다.[17]

---

16) 유권종, 「바렐라의 『윤리적 노하우』와 유교연구」, 『한국학논집』 42,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11, pp. 44-49.

17) 유권종, 「유교문화 전통연구에 관한 통합학문의 전망」, 『철학탐구』 22, 중앙대학교부설 중앙철학연구소, 2007, pp. 17-19.

구성주의에서는 사물에 대한 어떠한 지식도 우리 내부의 것을 응용하여 이해할 뿐이다. 따라서 상대를 이해한다는 것은 공존할 수 있는 제3의 영역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구성주의 입장에서는 현대의 실존 개념을 보면 이미 정해진 원칙에 바탕을 둔 초연하고 비판적인 도덕을 요구하는 실존과 그 자체가 선(善)이라고 하는 전통에 기대어 실천적이고 실제 상황에 적용되는 윤리를 추구하는 실존으로 구분할 수 있다. 특히 동양의 유불선은 '무엇이 되는 것이 선한가'에 관해서 집적된 사고의 전형으로 두 번째 실존을 보여주는 세계적으로 드문 사례다.[18]

결국 실존의 이해를 둘러싼 동서양의 차이는 똑같은 대립물의 통일이라는 문제해결의 과제를 둘러싸고 실체의 존재를 가정하고 중심으로 생각하는 서양보다 아무런 실체를 가정하지 않는 동양이 인간, 공간, 시간의 미분적 개념인 나, 지금, 여기의 실존을 이해하고 문제해결과정에 적용하고 수양의 수단으로 삼는데 훨씬 용이하였다.[19] 동양에서는 실체를 가정하지 않으므로 실체의 적합이 아닌 실존의 수양을 윤리로 생각하였으며, 현상학에서 밝힌 바와 같이 인문학은 바로 이 실존의 수양에 존재의 의의가 있기에 동양의 인문학이 서양에 비해 전통적으로 영향력이 강했다. 음양의 순환이라는 내재성에서 출발한 동양의 실존 개념인 시간[天], 공간[地], 인간[人]은 실존 개념이 문제해결의 과정과 수양의 길이 될 수 있음을 미리 보여주고 있다.[20]

---

18) 상게서, p. 20

19) 이근세, 「프랑수아 줄리앙의 비교철학에서 중국과 서양의 효율성 개념 비교」, 『대동철학』 58, 대동철학회, 2012, pp. 115-116.

20) 사실, 엄밀하게 말해 중국 철학에서 천인(天人)은 음양(陰陽)보다 앞서 사용되었다. "중국철학자들이 제기한 '짝'속에서 어떤 것이 가장 오래되었을까? 많은 사람들은 '음'과 '양'이라고 대답할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가장 오래된 범주는 '천'과 '인'이다. 이 대립적 범주는 늦어도 서주시대 초기에 나타났다."(『천인관계론』, 풍우, 신지서원, p. 15, 1993.)

동양에서 실존의 영향력이 퇴색한 이유는 동양 또한 실체가 없는 내재성에 치우진 사상적 특성으로 서양에 비해 실존을 실체화시키지 못했기 때문이다. 동양은 실존주의와 같이 문제를 늘 나, 여기, 지금을 중심으로 바라보고, 수양론으로 확대했지만 찾고자 하는 실존이 실체로서의 속성을 가진다는 서양의 실존 개념을 받아들이기에 내재성이 부족했다.

실존 개념이 동양인에게 먼저 이해되었다는 것은 동양사상의 기틀이 마련되는 시점이 실존주의가 서양에서 득세하는 시대와 매우 유사했다는 점에서 비롯된다, 실존주의는 2차 대전과 공산혁명이 끝나고 기존의 사상과 이념이 실천된 후의 현실이 이상과 다를 뿐 아니라 오히려 역효과가 나타나는 절망적 상황에서 세계를 석권했다. 동양 또한 사상적 기틀이 마련되는 제자백가(諸子百家) 시대에는 기존의 상제(上帝) 개념이 천(天) 개념을 통하여 유지되다가 마침내 붕괴되어 실존적 대안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21] 주(周) 왕실의 권위와 권력 집중이 무너지고, 춘추오패(春秋五霸)와 전국칠웅(戰國七雄)으로 이어지는 혼란 정국, 특히, 전국시대(戰國時代)는 《전국책(戰國策)》에서 따온 전국이라는 말 그대로 전쟁의 연속이었다. 그때 바로 인문정신이 싹틀 수 있었다. 천(天)과 인(人)을 논하고, 나와 여기와 지금의 문제를 고민하였다.[22] 동양은 제자백가 시절부터 실존주의처럼 인간의 사상은 자연과 같이 시간과 공

---

21) 중국 사상사에서 천(天)의 개념은 하느님, 천당, 천체, 본연, 자연, 찬성, 운명 등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그래서 웅십력은 중국 사상의 천과 기(氣)를 도깨비 같은 것으로 보았다. 그것은 의미가 너무 복잡하고 다양하기 때문이다.

22) 천과 인의 의미는 다양하게 사용되고 해석될 수 있다. “한마디로 하늘과 인간의 범주는 30여 세기 동안 지속되었으며, 천인관계에 대한 토론은 한 번도 중단된 적이 없었다.”(『천인관계론』, 풍우, 신지서원, 16쪽, 1993.) 물론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것은 세계적으로도 보기 드물다. 본고에서는 여기에 지의 개념까지 합하고, 미분적으로 접근하면서, 우리말의 표현을 이용해 ‘나와 여기와 지금’으로 논하였다.

간의 영향속의 존재이지 절대적 개념이 아니라는 것에서 출발했다. 그래서 인간은 불완전하다. 성선설(性善說)도 성악설(性惡說)도 불완전한 존재로 봤기에 나올 수 있는 말이었다. 그러면서, 이는 대립적이지 않다. 성선이 도덕적인 관점에서 과거를 본 것이라면, 성악은 교육적 측면에서 미래를 준비한 것이다. 결국 이러한 관점은 인간을 불완전한 존재로 보았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렇다고 서양처럼 신에 예속적 관계로 본 것은 더욱 아니다.

동양의 실존 개념이 서양 실존주의가 발견한 실체적 실존 개념과 결합되면, 실존 개념의 부활을 통한 현대 인문학 위기 해결의 한 축이 될 수 있다. 동양의 실존 개념은 구조주의의 실존개념과 가깝기 때문이다. 서양 실존주의에 내포된 인간, 공간, 시간 개념의 문제 해결적 특성의 발굴이 중요한 것은 실존주의와 달리 동양사상은 실용적인 실존 개념으로 사상계를 지속적으로 지배할 수 있었다는 점 때문이다. 서양에서는 일시적 유행에 그친 실존 개념이 동양에서는 오늘날까지 지속될 수 있었던 것은 실존주의와 달리 나, 여기, 지금이라는 개념을 인간, 공간, 시간을 통한 문제해결 개념으로 바꿀 수 있었다는 점 때문이다. 오늘날 서양의 사상가들은 동양사상과의 비교를 통해 나, 여기, 지금을 중심으로 하는 실존적 접근을 제시하고 있다.

4. 실존적 접근

실존적 접근이란 실용성을 배척하는 실존주의와 달리 실용성에 대한 나, 여기, 지금에서의 접근이라 할 수 있다. 나, 여기, 지금이라는 실존의 개념으로 실용성을 접근한다면 실용성은 매우 다양한 해석을 가지게 된다. 21세기에 실용성과 실존 개념은 서로 공존할 수 있는 개념이지만 20세기 실존 개념이 출현할 때 실존은 실증주

의와 실용주의에 대한 대립개념에서 출발했다. 20세기 발견된 실존개념의 반실용성은 실존주의 흥망의 동인(動因)이 되었다. 이기적 인간이라는 경제학적 인간관이 지배적인 시대에 실존이 가지는 반(反)이기적인 반(反)실용성은 실존주의를 시대의 총아로 만들었다. 그러나 실존주의가 뒤로 물러난 지금 돌이켜보면 실존주의를 주목받게 했던 반(反)실용성이 바로 실존주의를 사라지게 한 이유가 되었다. 나, 여기, 지금에서 본 20세기 인문과학의 실존 개념과 21세기 인문과학의 실존 개념과의 차이점은 20세기와 달리 21세기는 실용주의까지 포용하는 실존개념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오늘날 서양사상에서 실존에 대한 실용적 관점인 문제해결관점으로의 전환이 인문학 위기에 대한 대안이 될 수 있음을 지적한 철학자는 푸코와 프랑수아 줄리앙, 켄 윌버 등을 들 수 있다. 푸코와 프랑수아 줄리앙, 켄 윌버, 토인비는 공통적으로 서양의 비실존적 문명과 다른 실존적 문명과의 대화에서 대안을 제시한다. 서양의 비실존적 문명과 다른 실존적 문명의 실존에 대한 이해 차이에서 서양사상에서 실존의 실용적 관점이 발견될 수 있기 때문이다. 푸코와 프랑수아 줄리앙, 켄 윌버는 실존에 대한 실용적 관점인 문제해결관점으로의 전환을 넘어 수양적 관점에까지 도달해야 한다고 한다.

푸코는 후기의 대표적 저서인 『성의 역사2, 3권』에서 근대 서양문명과 다른 그리스 문명의 차이를 통해, 구조 속에 '자기에의 배려'라는 나, 여기, 지금이라는 실존적 수양이 나타남을 보여준다.[23] 푸코는 동양의 음양사상과 같이 대립물의 통일이라는 전통이 있던 그리스에서 실존의 문제는 문제 해결기법으로 발전하고 나아가 인문학의 영역에서 자기 수양의 문제로까지 발전하였음을 보여준다.

---

23) M.푸코, 『성의 역사3-자기에의 배려』, 이혜숙 · 이영목 역, 나남출판, 2004, pp. 57-59.

푸코는 서양 사상에서 실존주의가 사라진 이유는 실존주의가 그리스의 '자기에의 배려'와 같은 자기수양에의 길로 나아가지 못하고 문제해결의 차원에 머물렀기 때문임을 보여주며, 구조주의와 실존주의의 충돌에서 나타난 실존 위기의 대안을 제시한다.[24] 그리스에서부터 초기 로마까지 유행하던 '자기에의 배려'는 구조주의와 실존주의를 동시에 만족하는 나, 여기, 지금으로서의 실존이 가능함을 보여준다.

푸코가 제기한 실존의 자기 수양적 접근은 켄 윌버에게서 보다 구체적으로 나타난다. 켄 윌버는 인지심리학, 행동주의 심리학 등으로 대표되던 주류심리학인 개인심리학에 대항하여 양자역학에 근거한 초월심리학을 창안했다. 심리학은 개인이라는 분석단위가 아닌 간주관이라는 초월적 단위로 접근해야 된다는 초월심리학은 미국 역사상 가장 많은 토론을 낳을 정도로 광범위한 지지를 얻었다. 켄 윌버의 초월심리학이 제시한 서양 사상의 가장 큰 약점은 바로 수양론이 없다는 점이다.[25]

켄 윌버에게 서양의 실존 문제가 대두된 것은 푸코의 『말과 사물』처럼 독일 관념론에서부터였다. 켄 윌버는 푸코가 말한 유한성보다 더 구체적으로 독일 관념론은 관념이라는 용어로 사실상 나, 여기, 지금이라는 실존을 발견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동양과 달리 독일 관념론은 나, 여기, 지금이라는 실존을 문제해결, 나아가 수양론으로 발전시키지 못하여 결정적으로 역사에서 사라졌다고 보았다. 실제 실존주의도 독일 관념론과 거의 유사하게 한때 세계를 석권했지만 수양론의 부족으로 사라졌다는 것이다. 켄 윌버는 현대 사상의 가장 시급한 문제는 나, 여기, 지금의 인식론적 존재론적 접근을 수양론적 접근으로의 방향 전환하는 것

24) 홍은영, 「푸코와 자기배려의 윤리학」, 『철학연구』 46, 고려대학교 철학연구소, 2012, p. 288, 각주 27.

25) 켄 윌버, 『감각과 영혼의 만남』, 범양사, 2007, pp. 189-190.

이라고 한다.[26]

켄 윌버가 특히 문제해결의 방법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부분은 복잡성을 이용하는 부분이다. 21세기 실존 개념에 실용성을 추가할 수 있는 것은 20세기와 달리 자연의 유기성 곧 상호 피드백 속성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21세기 밝혀진 자연의 유기성 곧 상호 피드백 속성은 실용성의 기반이 되는 자연마저도 전체에 대한 조화라는 유한성을 가지고 움직이는 실존적 속성이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켄 윌버는 자연 또한 모나드와 같이 홀론으로 움직이고 홀론은 또한 진리의 4상한이라는 위계질서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 내면과 외면, 개인과 전체는 아메바에서 고등동물까지 위계질서를 가지고 진리의 4상한을 오르내리며 존재하게 된다. 진리의 4상한에서 실존이란 곧 실용이 된다.[27]

켄 윌버가 말한 수양론의 보다 구체적인 방법을 동양 사상에서 모색하고 있는 사람이 들뢰즈로 대표되던 프랑스 후기 구조주의의 차세대 주자로 알려진 프랑수아 줄리앙이라 할 수 있다. 프랑수아 줄리앙은 들뢰즈와 푸코 등 후기 구조주의자들이 찾던 바깥의 사유, 곧 서양의 뿌리 내재성이 동양 사상과의 비교를 통해 찾을 수 있다는 가정을 입증하고 있다. 프랑수아 줄리앙은 동양은 일찍이 실존의 수양론적 접근을 개척하여 서양과 전혀 다른 문제해결기법을 알았으며, 오늘날 서양이 놓친 실존 문제에 대한 대안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들뢰즈와 푸코, 데리다 등 후기 구조주의자들이 찾던 바깥의 사유 곧 서양의 내재성을 찾고자 했던 이유는 서양 사상에서 독단의 흔적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실존을 발견하게도 했지만 실존을 내

---

26) 유권종, 「유교문화 전통연구에 관한 통합학문의 전망」, 『철학탐구』 22, 중앙대학교부설 중앙철학연구소 , 2007, p. 25

27) 이동희, 「켄 윌버 시각에서 본 양명학과 주자학」, 『양명학』 30, 한국양명학회, 2011, pp. 9-13.

몰게도 했던 서양 사상의 특성은 독단에 있었고 데리다 등이 문자 중심주의 등으로 부르며 비판했지만 서양의 독단이 어디에서 초래하였는지를 분명히 밝히지 못했다.[28] 프랑수아 줄리앙은 동서양이 같이 대립의 통일을 지향했지만 실체를 가정하지 않는 동양의 내재성은 비록 실체 개념은 부족하지만 서양과 같은 독단을 벗어날 수 있었다고 한다. 프랑수아 줄리앙은『맹자와 계몽철학자와의 대화』에서 동양의 내재성은 서양과 전혀 반대되었기에 동양의 내재성에 기인한 맹자의 수양론적 실존 개념이 서양 근대사상의 뿌리가 되었음을 보여주고 서양 사상의 문제해결 사례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29]

독단이 아닌 순환의 방법으로 대립의 통일을 지향한 동양사상의 내재성은 실존을 통한 문제해결과 수양이 가능함을 보여준다. 그리고 21세기에 발견된 자연의 복잡성은 실용과 실존이 조화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실존을 이해하는 서양의 독단적인 방법과 동양의 순환적인 방법이 서로 조화될 때 실존을 중심으로 하는 인문학은 다시 부활될 수 있음을 프랑수아 줄리앙은 보여준다.

실제 오늘날 철학은 상담의 수준까지 실용적 문제에 접근하고 있다.[30] 실존의 위기는 실용성과 무관해 보이지만 가장 근원적인 문제가 되기도 한다. 또 광고 시장의 주요 코드는 여전히 실존주의라고 한다. 실존주의는 사라진 것처럼 보이지만 오늘날 실존은 토인비가 포스트모더니즘이라 불렀던 것처럼 더 세련되게 남아있다 할 수 있다.[31] 오늘날 실존은 과거 철학적 실존과 구조적 실존

---

28) 프랑수아 줄리앙, 박희영 역,『사물의 성향』, 한울아카데미, 2009, pp. 27-37.

29) 프랑수아 줄리앙, 허경 역,『맹자와 계몽철학자의 대화(도덕의 기초를 세우다, 루소 칸트)』, 한울아카데미, 2009, pp. 174-180.

30) 장영란, 정인재, 홍경자 외,『왜 철학 상담인가』, 학이시습, 2012.

31) 강기철,『후과학단계의 세계관』, 문예출판사, 1994, pp. 248-252.

을 포함하고, 나아가 자연과학적이고 사회과학적인 문제해결기법으로서의 실존의 의미도 가지고 있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여 나, 여기, 지금이 가지는 실존의 의미를 정의해 본다면 인간, 공간, 시간이 가지는 사이 '간(間)'으로 요약할 수 있다. 오늘날 인간, 공간, 시간은 유한성의 존재가 되었기에 인간, 공간, 시간의 미분 개념인 나, 여기, 지금이라는 실존 개념은 실용과 실존의 두 가지 의미를 동시에 가질 수 있다. 이제 문제는 모두 복잡계의 문제가 되었으므로 '사이(間)'를 통하여 존재와 가치, 실용이 서로 만나게 된다.[32] 특허와 자연과학에서 인간, 공간, 시간의 분리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동양 사상의 오랜 전통에서 천지인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듯, 이제 인간은 나, 여기, 지금으로 문제를 풀고 수양하는 존재가 될 수 있다.[33]

21세기의 특징은 20세기와 같이 외부의 기준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내면적 행복을 지향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실제 포스트모더니즘이 개화한 것은 90년대 이후부터이고, 막 시작하던 시기도 빨리 잡아야 60년대도 되기 전에 실존적인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가 50년을 내다보고 포스트모더니즘이라 명명하면서부터다. 오늘날 인문학은 실존주의가 유행하던 당시 새로운 실존의 개념으로 포스트모더니즘이라 지칭한 새로운 실존적 접근법을 부활할 필요가 있다.[34] 왜냐하면 오늘날 무의식적으로 나오는 자동적인 실존적 반응은 향후 시간이 갈수록 매우 활기를 띠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

32) 서동은, 「사이－존재(Dasein)로서의 인간」, 『존재론 연구』 25, 한국하이데거학회, 2011, pp. 197-199.

33) 김익철, 『창의적 문제해결 天地人』, (대구: 영남 DPS, 2012.)

34) 임희완, 「아놀드 토인비의 역사철학」, 『통일인문학논총』 37, 건국대학교통일인문학연구단, 2001, pp. 20-23.

5. 나오는 말

본고는 근본적인 해결의 기미가 요원해지는 인문학의 위기에 대하여 나와 여기와 지금을 중심으로 실존적 접근을 시도해 보았다. 물론 논의의 전개상 몇 가지 한계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예를 들어 인문학 위기와 실존의 관계, '실존'에 대한 입장, 철학사의 전개를 보는 관점 등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과 의견을 피력하지 못했다. 논의의 집중, 주제의 부각, 분량의 한계 등의 이유 때문이다. 이에 대한 것은 후속 연구를 통해 구체화 할 것이다.

현재 쏟아지는 다양한 인문학 정책과 일련의 사업 뒤에는 대학에서의 인문학 관련 학문의 존폐논란과 위기라는 음지가 긴 그림자로 남아 있다. 그래서 이러한 실상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며 경계하는 주장도 존재한다. 예를 들어『절망의 인문학』에서는 "순치된 인문학, 다시 말해 지배의 기술이 투영된 인문학을 경계해야 한다"거나,『불온한 인문학』에서는 "국가와 자본의 넘치는 관심과 후원은 인문학 재생의 밑거름이 아니라 나락일 수 있으면, 오늘날 인문학의 부흥은 이윤 창출을 위한 자본 축적 전략과 지배의 효율화를 위한 국가 통치전략의 소프트 버전"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는 것이다.

인문학의 위기는 비단 인문학자들만의 위기가 아니라 인류 문화의 위기이기도 하기에, 인문학의 위기는 모두가 공유할 중요한 문제이다. 본고에서는 철학치료, 문학치료, 독서치료 등 인문학의 실용적 활용으로 인문학의 위기 해결과 인문학 본연의 취지를 찾아가려는 추세에서 인문학과 사회-자연과학의 경계에 자리 잡고 있는 나, 여기, 지금의 실존 개념을 중심으로 인문학 위기 해결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보고자 했다.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핵심적인 도전과 문제점을 인문학적 관점에서 성찰해 볼 수는 있지만, 인문학만으로 치유한다거나, 인문학만이 이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은

커다란 오산이다. 치열한 경쟁 속에, 냉혹한 현실 속에 인큐베이터 속에만 안주하고 있는 인문학은 바깥세상의 외침과 부름에 호응하여 변하지 않으면, 대학의 구조조정처럼 타율적으로 조정 받을 수밖에 없다. 이런 측면에서 지금 우리 사회가 필요로 하는 것은 인문학의 학이 아니라, 인문의 정신이다. 고래로부터 인문정신은 당시 사회를 이끌고 변혁시켰으며, 새로운 가치와 방법을 창출하였다. 시대에 기생하며 시대적 요구를 무시하는 것은 올바른 인문정신이 아니다. 인문정신에서 핵심적인 요소는 바로 나와 여기와 지금에 대한 성찰일 것이다. 바로 실존의 문제이자 동시에 실천의 문제다. 이제 인문학도 그리고 인문학을 둘러싼 우리 사회도 모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나와 여기와 지금의 문제에 귀 기울여 봐야 한다. 여기서 바로 해결점을 찾고, 이로부터 출발해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생각한다면, 어쩌면 지금이 인문학과 우리사회를 한 단계 발전시킬 좋은 기회일 수 있다. 위기를 기회로 극복했던 것은 우리 역사에서 얼마든지 찾을 수 있다. 그리고 30년대 있었던 사회비판이론과 60년대로 이어진 신좌파운동, 그리고 80년대 전후하여 일어난 저항적 인문정신은 절박함과 비판적 정신이 사그라진 인문학자를 포함한 우리에게 경종을 울리면서, 인류역사상 최고의 물질적 풍요를 누리고도, 절박하고 절실한 개인과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나와 여기와 지금에 의미 있게 존재할 것이다. 이제 인문학은 몇몇 학자들의 소유물에서, 혹은 대학에 고용되어 온실 속에 일하며 임금 노동자로 전락한 교수들의 손에서 벗어나, 나와 여기와 지금을 비추는 인문정신으로 탄생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면서 스스로 “순치된 인문학, 다시 말해 지배의 기술이 투영된 인문학을 경계”하며, 각자의 나와 여기와 지금에서 인문학의 맹아(萌芽)를 키워야 할 것이다.

오랜 역사 속에서 인문학은 선인들의 과거와 거기에서 존재했다. 나와 여기와 지금에 빗대어 생각하면, 과거와 지금, 거기와 여

기는 많이 변했다. 환경이 많이 달라졌다. 그래서 나와 우리도 변한 것 같다. 그러나 사실 나와 우리는 그리 많이 변하지 않았다. 그래서 인문학이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이다. 나와 우리가 존재하는 한 우리 속에 내재된 인문 정신은 인문학을 계속 요구할 수밖에 없다. 이제 존재론적 차원에서 여기와 지금의 인문학을 생각해 봐야 할 때이다.

참고문헌

강기철, 『후과학단계의 세계관』, 문예출판사, 1994.

김덕삼, 『문수창: 문화의 수용과 창조』, 북코리아, 2013.

김상봉, 『우리말 철학사전 I 』, 「나[自我]」, 지식산업사, 2001.

김상일, 「음양오행론과 러셀의 역설」, 『과학사상』 25, 범양사, 1999.

김익철, 『창의적 문제해결 天地人』, 영남 DPS, 2012.

리처드 니스벳, 최인철 역, 『생각의 지도』, 김영사, 2005.

M. 푸코, 이광래 역, 『말과 사물』, 민음사, 1980.

M. 푸코, 이혜숙·이영목 역, 『성의 역사3-자기에의 배려』, 나남출판, 2004.

M. 하이데거, 이기상 역, 『존재와 시간』, 까치, 1998.

서동은, 「사이－존재(Dasein)로서의 인간」, 『존재론 연구』 25, 한국하이데거학회, 2011.

신지영, 『내재성이란 무엇인가』, 그린비, 2009.

유권종, 「유교문화 전통연구에 관한 통합학문의 전망」, 『철학탐구』 22, 중앙대학교부설 중앙철학연구소 , 2007.

유권종, 「바렐라의 『윤리적 노하우』와 유교연구」, 『한국학논집』 42,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11.

에크하르트 톨레, 유영일·노혜숙 역, 『지금 이 순간을 살아라』, 양문, 2008.

이근세, 「프랑수아 줄리앙의 비교철학에서 중국과 서양의 효율성 개

념 비교」,『대동철학』58, 대동철학회, 2012.
이동희,「켄 윌버 시각에서 본 양명학과 주자학」,『양명학』30, 한국양명학회, 2011.
이창재,「영원 동일적 도덕가치관에 대한 니체의 비판」,『연세철학』3, 연세대철학과 대학원, 1991.
임희완,「아놀드 토인비의 역사철학」,『통일인문학논총』37, 건국대학교통일인문학연구단, 2001.
장영란, 정인재, 홍경자 외,『왜 철학 상담인가』, 학이시습, 2012.
풍우,『천인관계론』, 신지서원, 1993.
프랑수아 줄리앙, 허경 역,『맹자와 계몽철학자의 대화(도덕의 기초를 세우다, 루소 칸트)』, 한울아카데미, 2009.
_____, 박희영 역,『사물의 성향』, 한울아카데미, 2009.
P.H.쾨스터스, 이기상 편저,『하이데거 철학에의 안내』,「하이데거의 삶과 철학」, 서광사, 1993.
켄 윌버, 조효상 역,『감각과 영혼의 만남』, 범양사, 2007.
허경,「미셸 푸코의 '사물'에 나타난 '근대 인간과학'의 개념」,『인문언어』10, 국제언어인문학회, 2008.
홍은영,「푸코와 자기배려의 윤리학」,『철학연구』46, 고려대학교 철학연구소 , 2012.

인터넷 검색 2013년 9월 30일 NAVER

Existential Approach to the Crisis of the Humanities with Self · here · now Centered

Kim, Dug-Sam · Choi, Won-Hyuk

This approach has been written to find the alternative for the crisis of the humanities on the orient existence concept which is centered to self, here, and now, substitute for Western existence concept which existentialism raised. The crisis of the humanities lies in denial of fundamental existential identity so called self, here, and now by critics of structuralism for existential identity which Existentialism found have been related the rise and fall of the humanities.

East asia's philosophy utilize existential identity as a methodology of problem-solving and self cultivation so called self(人), here(地), and now(天) as shown in *Sunzibingfa*(孫子兵法) by Sunzi and *I-ching*(易經). Unlike Western approach to existential identity emphasizing discovery and manipulatability, East asia's practical approach to existential identity contributed to the thrive of the humanities and also suggests an alternative to the crisis of the modern humanities.

East asia's practical approach to existential identity also has the problem which lacks substance concept comparing to Western approach to existential identity which leads to fall behind in the competition. But nowadays representative western philosopher like M. Foucault, K. Wilber, F. Varela F. Julien said the crisis of the humanities could be overcome by combination of East asia's practical existential identity and western substantial existential identity.

Key words: existential approach, self(人), here(地), and now(天), the crisis of the humanities, M. Foucault, K. Wilber, F. Varela F. Julien

김덕삼
대진대학교 교양교직부
주소: 포천시 선단동 호국로 1007 대진대학교 인문학관 402호
전화번호: 010 5232 0187
전자우편: konglai@naver.com

최원혁
대진대학교 대순종학과 박사과정
주소: 포천시 선단동 호국로 1007 대진대학교 대진교육관
전화번호: 010-5533-3900
전자우편: whchoi77@daejin.ac.kr

이 논문은 2013년 11월 10일 투고하여
2013년 12월 09일까지 심사 완료하여
2013년 12월 31일 게재 확정함.